



통권 54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6. 4. 9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저기 소리없이 또 하나의 꽃잎 지고...

지난 3월 29일 '대선자금 공개 촉구와 등록금 인상 저지 및 국가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노수석(연세대 법대2) 군이 사망했다. '애국학생 고 노수석 추모 및 김영삼 정권 살인폭력진압 대책위원회'는 노군의 장례를 4월 4일 치르기로 했으나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반대로 장례식이 연기되었다가 4월 9일 장례를 치르기로 8일 결정했다. 사진은 4월 4일 연세대에서 열린 영결식 장면.

검찰의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이대로 좋은가

— 장학로 뇌물수수 사건과 범민련 남측본부 이적혐의 공소내역을 중심으로 —

국가소추주의 원칙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는 국가의 국민의지를 대신하는 국가기관으로 형사소송법에 서 말하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는 엄격한 해당법 조문과 객관적 검증에 따라 서만 그러하지 임의로 혐의사실을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제기한 장학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알선수재' 혐의와, 범민련 남측 본부 간부들에 적용한 '이적' 또는 '국가기밀 수집전달' 등 여러 혐의는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줄여 작게 하려 했거나 불려 죄를 씌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뿐이다. 검찰에 대한 신뢰성, 더 나아가 국가공소주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키 는데 충분했다.

지난 30일, 서울지검 특수1부는 장학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청와대 재직 중 효성그룹 회장 등 14개 기업대표들로부터 60여차례에 걸쳐 6억 2천2백만 원을 받았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른바 "37억 부정축재" 폭로가 있자, 바로 그날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를 다짐했던 검찰이 이미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40여명으로부터 170여차례 27억 6천만원을 걷어모아 챙긴 뇌물성 부정축재 사실을 '대가성'이 아니고 '직무와 관련없다'는 애매모호한 말로, 청와대에 있었던 동안만의 그것도 일부 뇌물성만을 기소한 것은 한마디로 '봐주기 수사'의 전형적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청와대에 들어가기전(3당합당(민자당) 대표의원 비서실 근무)에 받은 7억여원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14억 4천여만원은 청와대에 근무했지만 '떡값' 등으로 받은 것이기에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수십만원의 떡값도 구속시킨 다른 공무원과 비교한다는 것은 오히려 말의 낭비일 뿐이다. 범집행의 형평성, 법앞에 평등은 단지 이상주의 일 뿐인지, 법을 다루는 검찰의 변명치고는 궁색하기 짝이 없고 국가공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의 이 같은 직무유기는 백번 규탄받아 마땅하다. 요즘은 흔한 말로 표적수사라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에서는 오직 "장·차관도 없고(뇌물 준 일) 인사청탁도 없었다"는 피의자말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피의자 '인권존중(?)'까지 하면서 것처럼 장담했던 '한 점 의혹없는' 수사는 기껏 '범죄사실 규명'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허울좋은 포장발표로 10일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동서고금을 통털어 절대권력 있는 곳에 절대부패는 늘 있어왔다. 권력핵심에서 벌어진 이 같은 범죄 사실을 놓고, 정권자체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물론 구조적 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검찰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다니!

위에서 말한 뇌물사건 처리가 검찰의 직무유기였다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평화적 통일운동을 해온 민간통일운동기구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구속과 '이적단체혐의' 등을 씌운 것은 또다른 검찰권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은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을 이적단체로, 범민련 가입을 이적단체 가입으로, 해외 공동사무국을 통해 북측본부 통신문이 왔거나 보낸 것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으로, 모든 공개적인 통일운동 관련 문건들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취득, 소지한 죄로, 범민련 뺑지, 달력 값으로 해외본부에서 받은 돈(수익사업)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과 금품수수료, 뺑지 등 판매대금을 받으러 갔다 온 것은 반국가단체와 회합하고 지령을 받을 목적달성을 협의하기 위해 탈출 또는 지령을 받아 잠입한 것으로, 전쟁포로 송환 기자회견문 또는 범민련 활동 사진 전송은 국가기밀 수집 전달로 기소하였다. 법률용어(국가보안법 용어)를 이렇게 모아 놓으면 대단한 죄라도 지었는가 싶지만 이 모든 위반 혐의가 휴전선 북쪽 땅을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때는 물론 완전 무혐의가 된다. 또한 범민련의 여러 활동들과 문건(해외나 북측에서 온 것)은 통일원과 관할 경찰에 신고를 마친 것인만큼 내용이 불온하거나, 이적성이 있다거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기는커녕, 7·4남북공동성명 정신, 2·16 남북합의서 정신에 따라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루자는, 그 어떤 민족민주운동 단체 주장과 다름이 없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관련자들은 직접심문에서 이적표현물이라 하지 말고 방청인들에게 관련문건을 읽어달라고 요구할 정도였다. 관련자들은 모두진술과 직접심문 과정에서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남북은 이미 서로의 이념과 체제를 인정하고, 유엔에 국가로서 함께 들어가 있으며, 7·4공동성명, 2·16 남북합의서를 발효시켰고, 수많은 정치인, 경제인, 문화예술인, 체육인들이 가고 왔을 뿐 아니라 정상회담까지 마련했던 통일의 주체이고 동반자라 규정된바 있다. 범민련은 정부가 인정하고, 제11차 범민족대회 회의장을 인터콘티넨탈 호텔로 주선하려고까지 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남과 북 해외의 3자 연대 민간통일운동 기구임을 강변한다. 그리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이미 국가보안법이 낡은 법으로 폐기처분해야 할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1년 대법원은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판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시는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물이 변화발전 하듯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조건에 맞게 나라를 움직이는 기조와 정책과 시행방법도 변해야 한다. 이미 미.일 등 북과 적대관계에 있던 '남'의 우방들이 국교정상화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한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하는 검찰의 낡은 냉전논리(심지어 검사는 어느 관련자에게 "북은 그대로 두면 붕괴되어 '흡수통일' 하면 될 터인데 무슨 통일운동이냐"고 했다. 물론 자연인의 의지라면 사상 양심의 자유로 무어라 할 수 없지만 국가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이면 쉽게 넘길 일은 아니다.)는 국가와 민족이 번영된 장래를 억지로 가로 막고 있는 격이 될 것이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게 오늘의 국제정치이다. 하물며 같은 핏줄로 수천년을 한 문화, 경제 공동체로 살아온 우리에게서랴!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장학로 뇌물사건을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절대권력 구조에서
벌어진 구조적 부정비리를 뿌리 뽑고 법치 정의를 실현하라.

외세에 의해 분단된 땅을 민족자주와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통일운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더구나 70-80노인과 여성, 그리고 임신부를 구속하는
반인륜적 만행을 그만 두고 관련자들을 즉각 석방, 불구속 재판 원칙을 관철하라!

따뜻한 밥상 앞에 아들과 마주 앉을 날을 기다리며

편집부

정덕이는 아직도...

어머니를 만난 것은 꽃샘추위가 한창인 어느 봄날 오후, 민가협 사무실에서였다. 자그마한 체구의 어머니께서 손에 무거운 라면박스를 들고 오신다. 집을 떠나 자주 굶고다녔을 자식생각을 하신 것일까. 모임이 있어 사무실에 계시던 몇 분의 어머니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신다. “어서오세요, 정덕이 어머니.”, “아니, 아직 아드님 만나왔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신다. “예, 우리 정덕이는 아직도 만나왔어요.”

이삼덕 님(56세)의 아들 현정덕 씨는 1990년, ‘사노맹’ 1차 사건으로 구속되어 8년 선고를 받고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그 6년의 세월 동안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감옥아닌 감옥 생활을 하느라 많이 쇠약해지시고 많이 힘드셨다. 언제나 마음 속으로 의지하고 기대었던 큰 아들이었기에 아들이 없는 생활을 견디기가 어머니로서는 무척 어려웠던 것이다.

자식이 희망이었지요

어느 부모님이나 그러겠지만 현정덕 씨의 부모님은 참으로 열심히 사셨다고 했다. 현정덕 씨의 아버님은 어린 나이에 월남해서 안해본 고생없이 힘든 삶을 살아오셨다. 부모님들은 2남1녀의 남매들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자식들이 있기에 그런 고생을 힘든 줄 모르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셨다. 속삭이는 일없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두고 동네사람들과 친구들은 무척 부러워했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신다. “그때는 정말 힘든 줄 몰랐어요. 희망이 있었지요.”

그러나 현정덕 씨가 대학에 입학한 이후 어머니의 잔잔한 행복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1982년 현정덕 씨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하였다. 어머니를 닮아 착하고 조용한 성품의 그가 그 시대의 대학생살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정덕이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느날 교수님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정덕이가 데모를 심하게 하는 문제학생이 되어있다고, 좀 만나자는 이야기였어요.”

그 소식은 부모님들로서는 날벼락이나 다름없었다. 어머니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는 줄 알았지 내아들이 그런 ‘문제학생’이 되어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현정덕 씨는 입학하자마자 4H와 같은 농촌봉사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성실히 일하면서 남에게 베풀 줄도 아는 선량한 부모님 밑에 자란 그로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매년 여름이면, 아니 일년에도 몇 차례씩의 농촌봉사활동을 떠났다가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이 되어 현씨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다.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 어머니는 ‘이제는 자기 잇속도 좀 차리고 살아야 할 텐데’ 하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욕심도 느끼며 지내왔다.

그러나 그뿐, 아들의 활동이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현정덕 씨의 생각은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 현정덕 씨는 ‘사노맹’

사건 구속자 후원모임인 <민들레>의 한 회원에게 올들어 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하였다.

“자신이 정치적인 지도자라 느끼는 사람이든, 봉사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든 마음의 자세가 ‘남을 위하는 것’으로 변화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치열함이나 강건함의 자세는 잘 갈무리해두고서, 봉사심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서로를 약간씩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공화국의 군사정권 아래서 치열하게 대학시절을 보낸 한정덕 씨는, 어머니의 애원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학을 하고 군입대를 하게 된다. 3년 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자 어머니는 한 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제는 마음잡고 공부해서 졸업도 하고 장남으로서 안정된 가정도 꾸려나가겠거니 여기셨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도무지 학교에 복학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고 설득해봐도 막무가내였어요. 학교다닐 필요를 더이상 못 느끼겠다는 것인지, 그애가 착하고 조용해도 또 그만큼 고집은 있어요.”

복학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던 한정덕 씨는 자신의 신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어머니의 곁을 떠나고 만다.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벌이기로 한 한정덕 씨가 찾아간 곳은 공단 주변의 달동네 지역이었다. 그는 농촌현실을 바라보고 가슴아파하던 학생에서 이제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로 자신을 변화시킨 것이다. 그것은 모순으로 가득찬 이 사회를 바꾸어보고자 하는 그의 문제의식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치열해진 결과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그 시절은 아들에 대한 가슴아픈 생각들로 먼저 다가온다.

“집을 나가 불기도 없는 추운방에서 얼마나 고생을 할까, 무엇을 먹기나 했을까, 굶고 있거나 앓을까. 정말이지 하루도 마음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아버님은 차츰 병이 깊어지셔서 돌아가시고 만다. 어머니께서는 이때 더 큰 충격과 상실감을 맛보아야만 하셨다.

몇 년 만에 날라온 소식은 ‘구속통지서’

가슴 한편에는 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접어두고서 애써 별일이 없겠거니 위안하며 살아왔던 어머니였다. 그러나 큰아들에 관해 몇

년만에 날라온 소식은 ‘구속통지서’였다. 언제 어느 일로 구속되어 있으니 그리 알고 있으라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건조한 통지서, 하지만 어머니로서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셨다고 한다.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생생히 그 날을 기억하신다. “1990년 9월 18일이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는 6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신다.

한정덕 씨가 관련된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은 90년 9월 1차 검거로 시작하여 91년 3월 박노해 시인 등이 구속된 2차 검거, 그리고 중앙상임위의장 백태웅 씨가 구속된 92년의 3차 검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투옥된 사건이다. 안기부와 경찰은 최근까지도 ‘사노맹 재건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연행하고 구속시키고 있다. 1차로 검거된 한정덕 씨는 안기부 수사에서 갖은 고문



과 협박을 받아야만 했고,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한다. 당시 스물일곱 살이었던 청년 현정덕 씨에게는 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때는 너무 놀랐고, 정신이 없었고, 그러면서도 차마 다 살겠는가 생각했지요. 그 절반의 세월이라도 정덕이가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현정덕 씨는 감옥에서 이십대를 마감하고 삼십대를 맞이하여야만 했다. 그는 지금 6년째 그의 소중한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나혼자 생각해봐요

아들의 구속과 재판 이후 어머니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다. 옛날 아이들 어렸을 때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오기도 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 감옥에 갇힌 큰아들 생각...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어머니를 좀처럼 놓아주지 않는다. 어머니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은 역시 감옥에 갇힌 아들 현정덕 씨 생각이다. 오랜 도피와 감옥생활로 현정덕 씨와 어머니는 언제 한번 따뜻하고 긴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없었다. 아들에게 따뜻한 밥상 한번 차려준 기억이 어느새 십 년도 훨씬 전이라고 어머니는 쓸쓸히 말씀하신다. 아들이 보고싶을 때는 사진이라도 들여다보고 싶지만, 철저히 활동해온 아들은 집에 사진 한 장 남겨두지 않았다.

“무조건 화가 나고 밉다가도 곰곰히 생각해볼게 되지요. 왜그랬을까, 왜그랬을까... 무엇이 그 아이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을까.”

어머니가 소박하게 내리신 결론은 이러하다. 자랄때도 착하고 조용했던 아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던 아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 아들은 이 세상이 자신이

배운 교과서처럼 그렇게 정직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나라가 잘못되었으니까 그애도 문제를 느꼈겠지요.” 어머니 역시 아들의 그러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신다. 이 세상은 너무 물질 위주로만 흘러간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서는 얼핏 현정덕 씨의 곧고 순박한 모습이 겹쳐떠오르는 것같기도 하다. 재판 때 검사에게 ‘서울 변두리 달동네의 처참한 생활과 현실을 당신이 아느냐’고 대드는 현정덕 씨를 보며 어머니는, 마음이 조마조마한 한편으로 내 아들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아들의 여러가지 모습, 찝찝한 대화의 기억들, 그런저런 생각들을 떠올려보며 어머니는 나름대로 아들을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당연한 걱정과 마음이 착잡하다.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 것은 정말 마음아파요.”

6년째 이어지는 어머니의 면회길

목포교도소로 현정덕 씨를 만나러 가는 날이면, 어머니께서는 새벽같이 일어나신다. 5시반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제대로 잠도 이룰 수 없다. 왕복 12시간의 그 길, 어머니는 건강하지도 못한 몸으로 6년째 그 길을 다녀오고 있다. 힘드시지 않느냐고 여쭙어보니까 아니라고 말씀하며 조용히 웃으신다. “차타고 창밖을 보면 좋잖아요. 다른 괴로운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우울하다가도 갔다 오고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아들을 만나고 왔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모습은 마치 소녀같기만 하다. 하지만 현정덕 씨가 처음으로 목포교도소로 이감됐을때, 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물어 물어 가야만 했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6년째 감옥생활을 해온 현정덕 씨는, 오히려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한다. 이것저것 공부하고, 생각하고, 또 그는 무척이나 자주 어머니께 자상한 편지를 쓰기도 한다. 그 편지를 통해 어머니는 큰아들과 생활을 의논하기도 하고, 현정덕 씨는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보며 정리해 가기도 한다. 현정덕 씨는 최근 어머니께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공부하는데만 온통 제 정신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현상과 경험들을 추적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아요. 제가 갈길은 제 뜻과 무관하게 이미 주어져 있는듯 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어떠한 감정도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뿐입니다... 항상 크나큰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너무 안스러워 하시지 마십시오. 저보다 더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걸 보면, 살아가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절에 나가신다. “불경을 읽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난 그 내용이 좋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그리고 조상에게도 예의를 다하는 것, 그것은 사람사는 도리 자체인 것 같아요.” 부모자식이 갖는 평온한 생활과 살뜰한 정에 대한 소망을 어머니는 불경을 읽는 것으로 달래시는 것일까. 어머니는

잘아는 스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의 이기적 욕심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많이 비웠다고 잔잔히 웃으신다. 그리고보니 어머니의 표정이 유난히도 담담하고 고운 것이 이해가 되었다. 늘 베풀 줄 알고, 깊은 사색에 몰두하던 작은아들은 지금 남도 지방의 어느 절로 ‘출가(出家)’ 중이라고 한다.

다음달이면 어머니는 또 아들에게 다녀올 것이다. 서울에서 목포까지의 길은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멀기만 하다. 아들이 없는 바깥세상에서 스물네 번의 계절을 어머니 혼자 보내야만 했다. 이제 또 한 번의 봄을 보내야만 하기엔 가녀린 어머니 어깨 위에 얹힌 세월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 현정덕 씨가 하루빨리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가 자유를 되찾아야만 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빼앗겼던 그의 소중한 권리이다.

차창밖 풍경을 좋아하시는 소박한 어머니, 부디 어머니의 다음번 여행은 아들 현정덕 씨의 손을 꼭잡고 떠나는 든든한 여행이기를 바란다. 그것은 너무나 오랜 세월을 고통과 외로움으로 보낸 어머니께서 이제는 정당히 누려야만 할 행복일 것이다.



▲ 둘째 아들의 대학졸업식 때 찍은 사진. 맨 왼쪽이 현정덕 씨.



오늘 해로 76세를 맞으시는 저희 아버지 김병권씨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로 기소된 지금 이순간에도 영등포구치소의 차 다한 감옥에서 평생의 소원이시던 조국통일을 열망하고 계십니다.

유달리 동포애가 강하셨던 아버지께서는 남과 북이 하나되는 조국의 평화통일만이 우리 민족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시고 그 신념을 위하여 지금까지 가시밭길의 험난한 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 가시밭길은 “어떠한 우방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고 천명한 대통령이 있는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11월 29일 아버지께서 활동하시던 범민련이 새삼스럽게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그동안의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했던 모든 일들이 갑자기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로 탈바꿈하면서 범민련에서 활동하시던 대부분의 통일인사들이 모두 안 기부에 연행되었습니다.

20여일간은 안기부에서, 또다시 30일간은 검찰에서의 조사와 취조 끝에 저희 아버지께 기소된 내용은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등입니다.

지난날 애타게했던 제 4공화국, 5공화국 그리고 6공화국 시절들...

남북관계가 권력 가진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그들의 기득권 비호를 위하여 이용될 때 그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양심적인 인사들이 빨갱이로 조작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빛나던 젊은 날들을 철창안에서 보냈어야 했습니까?

그 어두웠던 시절의 일들은 오늘 세계화의 구호아래서, 모든 것이 앞으로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이 상황에서 또다시 재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군사독재정권이 정통성이 결여되어 수많은 민주인사들과 정의로운 학생들의 고초를 담보로 정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야 할 문민정부에서, 왜 또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까?

범민련에서 만든 뱃지, 달력, 연하장들 그리고 진관스님께서 쓰신 붓글씨, 병풍 등을 가지고 일본 범민련 공동사무국에 가서서 팔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들이 공작금이 되고 그에 따른 활동이 간첩죄에 해당한다는 억지는 지난날 옹공조작 때 쓰던 방법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갈라진 조국의 하나됨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범민련이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원들은 일신의 행복과 가족의 안락을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포기하고 오로지 그 목적만을 위하여 외길로 평생을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모든 통일 역관들은 모두 무죄판결로 석방되어야 합니다. 정치가 무엇인가요? 이나라 민족 모두 잘살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 정치라면 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던 사람들을 내몰아서 억지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족쇄를 채우는 겁니까?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형법 제 35조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 35조는 누범죄 처벌조항입니다. 지난번 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 잔형이 사면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시면 그 형에 대해 2배까지 가중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남민전 사건이 무엇입니까? 과거 군사정권의 희생양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고 역사바로세우기가 한창인 지금, 그 정권의 부당성을 앞서 지적했던 선각자들이 연루된 사건인 남민전 사건이 누범 조항에 걸린다면, 도대체 지금의 역사바로세우기가 과연 제대로 서 질런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저희 아버지의 일편단심 통일에 대한 사랑의 화답은 어제도 오늘도 늘 싸늘한 감옥 뿐이어야만 하나요? 젊은 날에 겪은 시련들은 젊음과 소신으로 지켜나가셨지만 이제 그러기에는 76세의 고령과 오랜 감옥생활로 상해버린 노구가 너무나 힘겨우십니다.

지금 한가지 희망은 재판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결연 공정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시길 정의로운 판사님들이 계신다고 믿고 싶으니까요.



더불어 숲이 되어

편집부



직접 뵈는 적은 없지만 이미 여러차례 마주한 저서와 글씨로 익숙한 느낌을 주는 신영복 선생님을 바로 찾아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나는 소풍가는 아이처럼 마냥 들떴다.

열차를 갈아타며 시내를 다 통과해 도착한 온수역은 다소 황량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온수동을 헤집고 선생님과 약속된 성공회 대학의 정문앞까지 갔을 때 나는 다른 동네에서 온 이방인의 쭈뼛한 느낌을 싹 지울 수 있었다. 정문 기둥에 선생님의 글씨로 쓰여진 '성공회 대학'이란 문패가 의젓한 주인처럼 친숙한 얼굴로 우리를 반겼기 때문이다.

교수회관 3층에 위치한 선생님의 연구실은 아늑했고, 온화한 인상을 하고 계신 선생님의 목소리는 심산계곡의 시냇물처럼 맑고 잔잔했다.

선생님의 잔잔한 목소리 때문인지, 연구실에 가득한 녹차향 때문인지 우리는 번잡한 속세를 벗어나 고요한 정자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선생님의 곧고 굽은 삶의 이야기를 들었다.

꼬마 적산사수 사령관(?)

“나는 1940년 10월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 이듬해 8월에 났습니다.”

선생님께서 생년월일을 말씀하시는 법은 독특하다. 달랑 태어난 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전 생명이 되었을 때부터를 따져 말씀하신다. 태어나서 바로 1살로 치는 우리나라 나이 측정법이 담고 있는 철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고개가 끄덕여진다.

선생님의 고향은 경남 밀양이지만 선생님이 나신 곳은 경남 의령군 궁유면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사택이다.

아버님 신학성 선생님은 구차하지 않을 정도의 자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신 후 교직 생활을 하였고, 선생님이 나실 때는 그 곳 교장 선생님이로 계셨다.

엄혹했던 일제하에서 선생님의 아버님은 일인교장 배척과 비밀리에 한글연구 씨클에 참가했다 그 일이 발각되어 해직됐던 일도 있는 분이 다.

교육자이자 항일 선각자이신 아버님은 또한



상”(94년 출간), “김종직의 도학사상”(90년 출간)이 그것이다.

“밤중에 자다보면 잠결로 아버님 동료분들이 우리집으로 몰려와 뭔가 소근소근 얘기를 나누다 밤참을 먹고 우르르 물러가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어린 아이임에도 어른들의 비밀스런 움직임과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을 인상적으로 느끼셨던 모양이다.

아버님의 조국광복을 위한 활동 때문인지 해방이 되자 동네 청년들은 자연스레 선생님 댁으로 모여 들었다.

그때 나이 5살이던 선생님은 문리가 트이질 않았지만 안면있는 동네 청년들이 눈에 빛을 내며 이리저리 몰려 다니는 모습이 마냥 좋아보였다 한다. 비록 남의 집에 묵인 머슴들이었지만 선생님을 귀여워하며 팽이도 만들어주고, 연도 만들어 주던 건강하고 친절한 동네청년들이 밤이면 횃불을 들고 다니며 당당히 어깨를 펴고 새로 열릴 해방공간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으려는 모습이 왠지 좋아보였다. 청년들은 선생님

이름난 도학자이기도 했다.

88세로 95년에 세상을 뜨기 전 값진 저서 두 권을 남기신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사명당의 생애와 사

에게도 일을 맡긴다. 일본인들이 버리고 달아난 교장사택을 지키는 일이었다. 소위 ‘적산 사수 사령관(?)’으로 해방의 밤을 보내신다.

그러나 달아났던 친일파들을 앞세워 미국인들이 동네에 나타나자 그 청년들은 모두 자취를 감춘다.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6.25. 인민군이 들어오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양쪽군대의 전투장은 아니었지만 선생님은 다리를 건너 다니며 끔찍한 6.25를 겪는다. 학교에 가기 위해선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다리 난간에 빨치산의 머리를 철사로 꿰어 매달아 놓은 것이 죽 걸려 있었다. 선생님은 누이들이 그것을 무서워해 차마 등교를 하지 못하던 그 다리를 건너 학교를 다니셨다.

겪고도 알지 못하던 유년기 경험의 각성은 한 순간의 득도처럼 나중해야 온다.

그것이 얼마나 큰 조국의 아픔인지. 그 참혹하게 효수된 머리중 땅에서는 굼뜨다가도 산에서는 날랜 범이되던 맘쑤던 동네머슴이 있었던 건 아닐런지 하는 의문으로.

그후 선생님은 아버님의 권유로 부산상고에 진학한다. 선생님의 형님이 이미 고려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터라 빠른 월급으로 자식 둘을 대학교육시키기는 버거울거란 데서였다.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아주 진보적이고 정의감이 강한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따로 불러 ‘너는 은행가진 아깝다. 은행에 가지말고 꼭 대학에 가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그 뒤 4.19때는 교원연맹에 가입하기도 했던 실천적인 분이셨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쓰신 글 중)

1959년 선생님은 서울 상대 경제학과에 입학 하신다.

통혁당과 청년 사형수

그리고 1960년의 4.19 혁명과 그 이듬해의 5.16 군사쿠데타 사이 선생님은 그 열린 공간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러했듯이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에 대해 많이 읽고 공부하며 자기 정체성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된다. 흩어져 있던 타래들이 가닥을 잡아가며 하나의 세계가 깨어지고 그위에 건설되는 새로운 세계.

김종직, 조광조 등으로 이어지는 사림의 본지 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려말 민초들이 삼별초 정권에 국세를 내고, 갑오농민전쟁때엔 보은 집회 다음가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고, 봉건왕조 말 의열단원 13인중 9인의 고향이기도 했던, 저항의 맥이 끊이지 않던 고향땅 밀양과 선생님과의 관계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도 그 때이다.

자기 정체성의 확립과 사회 모순구조에 대한 역사적인 각성, 그 역사의 흐름속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의 고민들은 마침내는 반쪽의 몸뚱이를 뒤척이며 신음하는 조국과 만나게 된다.

그 즈음 선생님은 씨름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씨름운동의 싹이 언 땅 밑으로 자라던 때이다.

선생님은 굴절된 역사와 사회모순의 해결은 명확하게 모순구조를 인식할 수 있는 청년들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후배들을 지도하며 대학과 대학원 생활을 한다. 또한 선생님은 대학원에 다니며 진보잡지 '청맥' 과도 인연을 맺는다. 많은 선배들이 포진해 있던 때문이다. 선생님은 젊고 의식있는 강사들의 연구모임인 '새문화연구회'를 꾸려 진보적 글을 '청맥' 지에 기고한다.

1965년 선생님은 경제학과 대학원을 졸업한다. 이때 함께 어울린 학우로 박재윤(통상장

관), 안병직, 신용하 교수, 후배로 정운영(한겨레 논설위원), 김수행 서울대 교수 등 여러 경제학과 후배들이 "경우회"의 맥을 잇는다.

선생님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숙명여대에 출강하게 된다. 그때나이 스물네살의 동안인 선생님은 어떤 때는 수위로부터 쫓겨 나는 수모(?)를 겪기도 하셨다한다. 왜 남학생이 여학교에 들어오느냐고.

그리고 다음해 선생님은 중위의 계급을 달고 육사 경제학 교관으로 나간다. 간혹 계급장을 거꾸로 달고 가 학생들로부터 웃음을 사기도 하며 학생들과 친근히 지내던 풋내기 교관이던 신영복 선생님은 그러나 68년 통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사형 선고를 받는다.

당시 선생님은 군인의 신분이었으므로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그때 내가 27살이었는데 1년6개월 동안 사형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죽을 준비를 하며 지냈는데 너무 어려서 죽으려니까 좀 섭섭하네요."

선생님은 왜 감옥에 가야 했고,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선생님은 사건과 감옥 이야길 별로 하시지 않는다. 해방전후를 살며 아직은 넓기만 했던 역사의식이 엄청난 독서량 말고도 외세와 분단과 전쟁과 살육을 보며, 수백년 식민지에서 해방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던 제3세계, 중국의 문화혁명,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보며 스스로 인고의 시간을 택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선생님은 그 아픔의 담장 안 생활까지도 결코 헛되지 않으려 한다.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것입니다.(중략) 햇빛 한 줌 쬔 줄 단 한 개의 잎새도 없이 동토에 발목박고 풍설에 팔 벌리고 서서도 나무는 팔뚝을 가슴을 그리고 내년의 봄을 키우고 있습니다.(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중에서)

이현재 서울대 교수 등의 탄원으로 선생님의 형량은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된다.

묵향으로 우리난 20년 20일

감옥에서 선생님은 서예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신다. 붓 끝에 세월을 싣고 갇힌 자의 울분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묵향으로 우려내셨다. 또한 20년을 격리되어 사람과 떨어져 지내며 사람이 더불어 올바르게 사는 법에 대한 혜안을 가지게 된다.

“20년 감옥을 살면서 사람을 보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한사람의 사상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따로 떼어 놓고 볼수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사람을 판단하던 시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운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의 편에 서겠다는 인간적인 양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토대위에서 더 높은 의식적 고양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오래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 중 운동가의 1차적 기반은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하고 소박하지만 생명력이 긴 양심에 있다는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이 멀리가는 정소리처럼 귓전과 가슴을 거쳐 창자속까지 울린다.

1988년 8월 15일, 선생님은 20년 20일만에 아직도 식민지 유제가 가시지 않고 제 민족의 올바른 외침을 가뒀었던 감옥문을 나온다.

출소 후 선생님은 결혼을 해 현재는 일곱 살 난 아들을 두셨다. 참 먼길을 에돌아와 꾸린 가정이다. 부인 유영순 씨는 KBS 라디오에서 클래식 프로를 담당하는 PD다.

다시 청년들 속에서

그리고 다음해 선생님은 성공회 대학에 초빙

교수로 출강을 하게 되었다. 21년만에 다시 서게 된 강단과 잦은 방문으로 선생님을 괴롭히는(?) 많은 후학들.

취재를 간 날도 잦은 학생들의 방문으로 인터뷰가 자주 중단되었다. 스스럼없이 '선생님' 하며 교수연구실을 찾아오는 학생들을 보며, 선생님이 요즘 중앙일보에 격주로 연재하시는 기사("역사의 뒤안에서 띄우는 엽서"-선생님의 글은 "감옥..."에서 그러하듯이 무작위로 어느 곳을 짚고 읽어 보아도 마치 위대한 석공이 다듬어 성체를 쌓았듯이 토씨하나 버릴 수 없는 주옥같은 문체이다)를 깨끗이 정리해 선물한 학생들을 보며, 먼발치에서도 선생님께 인사를 하는 학생을 보며 나는 시기어린 부러움을 느꼈다.

최근 서울대생들이 만나고 싶은 선배로 선생님을 두번째로 꼽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란 것을 다시 느낀다.

선생님에겐 '세례자'란 별명이 있다. 모란공원에 가서 묘비가 선생님의 글이면 문헌 이를 몰라도 '아, 민주열사인가 보다.'고 미루어 짐작하게 되고, 사회단체 이름이나 신문제호가 선생님 글씨로 되어 있으면 역시 '음, 민주화운동을 하는 텨가보다'고 지레 짐작할 수 있다는 데서 붙은 별명이다.

선생님의 인고의 시간 끝은 정신과 세계관으로 육화로 작품들은 출소한 뒤 '세실'에서(89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출판기념회와 서화전, 그리고 학교재에서(95년) "손잡고 더불어" 주제로 대성황리에 서화전을 갖기도 했다. 작별인사로 선생님의 부드러운 손을 맞잡고 흔들며 나는 그렇게 서있는 선생님과 우리가 선생님 글씨의 한 획 한 획으로 변해가는 환영을 본다.

'더불어 숲'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70년대 청춘들을 통해 바라본 우리 <십년간>

안소영 (30세, 회원)

십 년, 이십 년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시는 어른들을 경이롭게 바라보았던 적이 있었다. 머리 속에서 기억나는 내 삶의 나날들이 채 십 년도 되지 않는 사춘기 시절과, 이제 막 내가 살아온 십 년의 세월이 보여지기도 하는 이십대 초반까지도 나에게 그 말은 언제나 신비스러웠다. 이제는 나도 가끔 십 년의 세월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제 한번 본격적으로 펼쳐놓고 그 세월을 들여다보지는 못했다. 그러기엔 왠지 아련하기도 하고 가슴아프기도 한, 내가 그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어라 분명히 정의내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을 쓴 방현석은 61년생이니 그의 '십년간'은 나보다 앞선 셈이 되겠다. 작가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십년간'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보다 앞선 세대들의 '십년간'을 택하여 그의 '십년간'을 이야기하고 우리 '십년간'을 돌이켜보게도 하는 것이다.

머리 좋고 신중한 준호와 의협심 강하고 활달한 석우, 독실한 기독교 신자 완수, 이 세 사람은 친구들에게 '엉뚱한 삼총사'라고 불린다. 그들의 길은 서로 달라서

준호는 독학으로 법대생이 되고, 석우는 대학시절부터 정치지망생이 된다. 완수는 목사의 길을 걷고 싶지만 가정형편상 요꼬공장의 기술자가 된다. 여기에 국민학교 동창 순분과 그들과는 반대편 권력의 쉼에 서있는 서익, 그리고 다양한 청춘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70년대의 사회상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다.

내가 기억하는 70년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를 '국민교육헌장'을 한 자도 틀림없이 어린 머리 속에 집어넣고 시험까지 봐야만 하는 숨막히는 기억으로 먼저 다가온다. 오후 6시만 되면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온국민은 부동 자세로 꽃꽂이 서 있어야만 했다. 군사정부의 첫 신호탄이 되었던 이 나라의 대통령이 병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요했던 일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그의 몸 가득히 밴 일제시대 만주군관학교 시절의 향수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한 시절에 보낸 그들의 젊음은 어떠했을까. 준호의 학교는 사복형사들에게 무참하게 끌려가는 학생들의 비명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다. 석우가 활동하고 있던 야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의 잦은 습격과 테러에 엉망이었다. 완수의 일터는 노동자들의 정

당한 권리가 마구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처참한 곳이었다. 작가는 이 속에 71년 대통령 선거, 인혁당 사건, YH사건 등을 세심하게 배치하여 그 시절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짐승같은' 시대를 살아오면서도 그들이 든든히 버티나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따뜻한 정이다. 석우는 말한다. "내잔테 이런 친구 하나 있다카는 그거 하나로 배가 부른 그기 참말로 친구 아이가. 내잔테는 대한민국에서 켈로 똑바린 맘 가진 친구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켈로 똑똑한 친구가 있다, 이 생각만 하며 겁나는 기웃는데 너거는 안 끝나?"

이들의 '십년간'은 1979년 몇 발의 권총소리로 마감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나날들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준호는 생각한다. "역사에는 공짜가 없어.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대가를 치르며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몫은 역사에는 없는거야."

작가의 이십대는 80년 계엄선포와 함께 찾아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최루탄과 강제징집과 감옥행으로 고통받아야만 했던 어지러운 시절이었다. 그 시절의 종반 어딘

가에서부터 또 나의 '십년간'은 시작되었다.

나에게 우선 그 시절은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벅찬 물결들로 먼저 다가온다. 한 장, 두 장의 유인물을 몰래 접어뿌리는 것이 아니라 환한 대로에서 수십만, 수백만의 군중이 모여 한 목소리로 외쳤던 기억을 무어라 설명할 수 있을까. 그 기억은 내가 가끔씩 사람의 본성에 대해 회의할 때마다, 역사발전에 대한 답답한 의구심을 가질 때마다 새롭게 다가와 나를 추스려 세워준다. 그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낙관적 자세와 자신감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다. 정작 그 날을 만든 사람들은 암담한 시대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던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이 당시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나의 세대가 아니라면 그 다음 세대에게라도 빛나는 나날들을 물려주고 싶다는 소망. 내 '십년간'의 첫머리는 그와같은 수많은 선배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에 것처럼 벅차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 소중한 나날들의 상당한 부분이 혼란과 상실감으로 채워지기도 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표의 상실이 라고도 하고 이념의 붕괴라고도 하는 말이 90년대 들어서부터 생기기 시작하였다. 한 세계의 혼란은 그 사회와 정신적, 문화적 뿌

리가 비슷한 서구의 진보주의자들에게는 큰 타격이었을 것이다. 또한 그 이념을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매달려온 학자들에게도 큰 타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보를 향한 우리 열정의 출발은 그 어떤 모델이나 이론을 향해서가 아니었다. 모든 인간은 저마다 소중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건만, 현실 사회는 이것을 끊임없이 억누르고 왜곡시키며 불평등하게 만들어 나간다. 우리의 문제의식의 출발은 이것에 대한 분노였다. 이 출발점을 굳이 수정해야 할 이유는 아무데서도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어야 하고 수많은 양심적 목소리들은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있어야만 한다. 이 나라의 역사는 무수한 죽음과 감옥으로 내뿔었고, 심지어는 50년대의 죽음을 아직도 감옥에 가두어두고 있다. 역사청산의 구호는 요란하지만 청산된 역사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좀더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고 풍부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가치있는 사상과 정의로운 행동에 대한 열정은 우리를 들뜨게 했지만, 그것을 지나긴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소화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나누기에는 미숙했고 급했다. 자기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사람만큼 변화 많고 입체적인 것이 또 있을

까. 저마다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동질감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관심에서 출발해야만 하는 것이다.

작가는 아직 그의 청춘의 '십년간'을 도저히 쉽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다만 그는 그 시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되짚어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 <십년간>이 바로 그것이다. 머지않아 나는 그가 그의 '십년간'을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것은 알파하게 유행하는 '후일담' 류의 소설이 아닌, 고통스럽지만 진지하고 따뜻한 소설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 즈음에는 또한, 자신의 '십년간'을 들여다보기를 주저하거나 어려워했던 많은 사람들도 애정어린 성숙한 눈으로 그 시절을 들여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진보를 향한 우리 역사의 전진은 더욱더 믿음직스럽고 활기있게 되리라 믿는다.





우리가 엮어내는 무늬, 온전한 무늬

박성희 (26세, 회사원)



기를 쓰고 박박 닦아야만

꼬박 달포전부터 안경을 쓰고 살고 있다.

애초에 안경점에 들렸던 것은 도수없는 빨간 빨데 안경을 하나 걸치고 다니려는 내 나름의 속셈 때문이었다. 그런데 안경점 아저씨가 시력검사를 하더니 혀를 꼰꼰 찼다. 자기 눈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도 의심한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미안하게도 없다. 한 번 도.

그렇게 해서 쓰게된 안경은 여간 신경 쓰이는게 아니다. 안경알을 닦는 일이 슬슬 문지르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기를 쓰고 박박 닦아야만 겨우 말갛게 되고 또 금새 흐려진다. 하루에도 몇번씩. 익숙치 않은 나는 금방 지쳐 안경을 접어 서랍에 던져둔다. 그러면 안경을 썼을 때의 답답함이 그대로 벗었을 때의 흐릿함으로 변해 허둥거린다. 안경을 안 써볼 요량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사물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흠여지는 순간에 머뭇거리면서 아우성을 치는 느낌이 든다. 순전히 내 망상이긴 하지만.

이런 사소한 실갱이에 지치면 중얼거린다. 이렇게 기를 쓰고 바로 보려고 하면 바로 보이는가, 그래서 이제 제대로 보이는가,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이렇게 기를 쓰고 박박 닦는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볼 수 있을까. 제대로 살아질 수 있을까.



잡아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연신내역에 모인 후원회 사람들은 금새 표가 났다. 특히 아이처럼 신나 하시는 변숙현 선생님 모습은 지나는 사람들까지 돌아보게 했다. 열시까지 모이기로 약속했지만 마음좋은 선생님은 늦는 몇사람까지도 기다려 출발했다. 북한산 도사, 회장님은 비봉봉우리, 진흥왕 순수비, 북한산성, 거기에다 북한산이 품고 있는 속깊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게 역력하다. 그런데 우리 산행을 미처 알아채지 못한 날씨가 말썽을 피웠다. 빗방울을 뿌리지 않나, 진눈깨비가 날리지 않나, 산을 내려왔을 때는 안개가 사람을 토해낸다고 말할 정도였다. 생각같아서는 하늘을 휘휘 저어 두꺼운 구름들을 걷어내고 싶었다. 그러나 자연의 조건이 나쁠수록 사람의 몫은 더 빛나기 마련. 곳은 날씨속에서 산행은 일반 산행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워지고 자연히 한사람 한사람을 더 챙기게 된다. 몸이 불편하신 선생님은 젊은 손이 잡아주고 설익어 보

이는 발걸음은 지긋한 선생님들의 눈길이 먼저 붙들고, 우리 일행은 어다서나 눈을 끌 수 밖에 없다.

아하, 이런거군. 후원회 산행의 의미가. 모두 제 갈길만 갈 줄 아는 사람들의 사회에서 우리가 엮어내는 무늬가. 걸음을 늦출 줄도 알고 잡아줄 줄도 알고 당겨줄 줄도 알고, 온전한 무늬.

안영 선생님이 열심히 들려주시던 온전한 인간. 인간의 몸이 바르게 펴진 가장 자연스런 상태의 인간일 때 불리는 말 - 아름다운 인간, 사람. 사람의 본질에 다가서려는 노력. 이세균 선생님이 어서 빨리 통일이 되게 하려면 올 한해도 바쁘다고 다짐하시는 짧은 말씀은 누구를 일컬어 젊은이라 말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 준다. 선생님들이 회원들에게 갖는 애정은 각별하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후원회 회원들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볼수록 그런 생각이 우러난다. 내 산행기를 통해 3월 산행이 어떠했나를 더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겐 미안하지만 더 얘기해 주고 싶지 않다. (내게 시시콜콜 얘기하면 간 사람하고 안간 사람하고 똑같게?)

다만 어지간히 굵뜨는 축에 끼는 내가 이구영 선생님의 한시 낭송, 이기형 선생님 자작시 낭송 모습, 회원들의 광란(?)의 뒤꽂이를 LP로 만들어 볼 궁리를 꽤나 했다는 사실만 밝힌다. 만약 누구든지 후원회 산행에 나서면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감동을 챙기게 될 것이다.

특히 당해본(?) 사람은 안다. 빈둥거리는 새 얼굴 하나 달고 나가면 회장님이 얼마나 총애하시는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특해 하시는지.



고운나라

나는 후원회산행 다음주에 북한산에 오를 기회가 있었다. 연신내 폭에서 향로봉으로 곧장 가는 코스로 오르다가 무심코 고개돌려 둘러 볼 기회가 있었다. 그 때 눈에 들어온 풍경이 참 고왔다. 내가 늘상 영켜 살고 있는 곳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처음 보았다. 강줄기가 가운데 띠를 두르고 산자락이 사람들의 집과 얘기하고 있는 풍경. 참 고운나라,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을 키워도 좋을 나라, 절대 희망을 꺾어선 안 될 나라, 제 아무리 포악스런 계절이 오더라도.

나는 안경알을 닦으며 된다. 마음이 어긋나고 부딪혀 산산할 때 그 고운 나라의 풍경과 선생님들의 인내를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쇠겨절을.

이런일이 있었어요

- 3 · 1 - 3 · 1 운동 77돌을 맞아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가 주최한 '3 · 1 민족자주정신 계승 및 일본군국주의 부활반대' 결의대회가 종묘공원에서 7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일본대사관까지 거리시위를 했습니다.
- 3 · 2 - 전두환 씨가 경찰병원에서 73일만에 안양교도소로 재수감되었습니다.
- 3 · 4 - 가평 대성리 '해돋이 공동체'로 김도한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은 편이었으나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신틀 했습니다.
- 전두환의 병원비 7백여만원(73일간 특실병원비 5백 47만 5천원을 포함한 각종 약 값, 검사비 등)을 법무부가 전액 부담키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재소자에게는 자비부담의 원칙을 철저히 시행해 온 법무부가 7조 억원을 도둑질한 파렴치범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분노스런 처사에 민가협은 즉각 항의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3 · 6 - 민가협 제11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5차모임이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 52차 정기총회에 민가협 국제담당 김수지 간사를 파견하기로 했고 96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 미 국무부는 나라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남한정부가 국가보안법으로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실태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l)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해 각 정당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국가보안법 개정, 정치범에 대한 재심사,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철폐,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 조사 등 인권관련 사항들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 '고 이덕인 열사 사망 1백일 추모 및 민중생존권 탄압 규탄대회'가 대책위 주최로 인천 시민회관에서 열려 사인진상 규명과 아암도 노점상들의 생존권 보장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3 · 7 - 민가협 목요일집회가 있었습니다. 주명순(범민련사건으로 구속)님의 따님 박운경 씨, 유근혜 씨가 의정부교도소 소장의 재소자 구타사건을 발표했고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된 강희원 씨의 부인이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꽃다지가 양심수 석방을 염원하는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 3 · 8 - 범민련 남측본부 상임부부장 전창일 씨 등 3명의 첫공판이 서울지법 311법정에서 열렸습니다.
- 3 · 11 - 전두환 노태우 등 12 · 12 및 5 · 18 책임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유가협 전 회장 강민조(고강경대 열사 아버지)님이 전두환의 세 아들에게 구타를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민조님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사당위원회에 입원했습니다.
- 성동구치소에 수감중인 주명순님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재소 생활이 어려운 건강상태를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 3 · 12 - 강민조님은 전재국 등 전두환의 세아들을 비롯한 폭행 당사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법에 제출했습니다.
- 3 · 13 - 제 3자 개입범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 '후원회소식' 53호를 발송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애써주셨습니다.
- 범민련 남측본부 강희남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재판이 열려 모두진술이 있었습니다.
- 3 · 14 - 민가협 목요일집회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아들들의 강민조님 구타 사건, 전두환의 병원 치료비를 법무부에서 모두 부담한다는 방침에 대한 규탄과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안치환 씨가 함께 해 좋은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 김도한 선생님께서 다시 사당위원회에 입원하셨습니다.
- 주명순 선생님이 수감중이던 성동구치소에서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곧바로 한일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 범민련 사건으로 수감중이던 김영재님이 누님께서 돌아가셔서 귀휴로 잠시 풀려났습니다.
- 문화방송 노동조합은 편파 보도 등으로 불신임을 받고있는 강성구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5백여명의 시민, 학생이 함께한 가운데 '미국의 광주학살 지원 규탄 및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 촉구대회'를 갖고 미대사관을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3 · 15 - 부여간첩 김동식 불고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허인회 씨의 3차 공판(증인신문)이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3인 모두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증언했습니다.
- 유가협, 민가협, 민주노총 등은 서울지검에 '전두환 세아들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 한일병원으로 주명순 선생님 면회를, 사당위원회에 강민조, 김도한 선생님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 3 · 16** - 민가협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회장으로 뽑힌 이영옥 님이 가정일 등의 사정으로 사의를 표하여 부회장 가운데서 정양업 님 (송갑석 어머니)을 회장으로 다시 선출했습니다.
- 유가협, 민가협 회원들은 강민조 님의 법정 폭행과 관련, 연희동 전두환 집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 3 · 18** - 제 52차 유엔인권위원회가 4월 26일까지 6주간 제네바 유엔 인권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인권위원회에서는 아비드 후사 인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인권상황을 조사한 최초의 인권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 12 · 12 군사반란 범죄자들의 2차공판이 열렸습니다. 유가협, 민가협 회원들이 법원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초경찰서에 연행되어 오후에 풀려났습니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신 이종 선생님께서 어깨 통증으로 사당의원에 입원하셨습니다.
- 3 · 19** - 주명순 선생님 사당의원으로 옮겨 진료받고 계십니다. C형 간염, 저알부민혈증, 온몸 통증으로 힘겨워하셨습니다.
- 3 · 20** - 한충련 대표로 범청학련 대회에 다녀온 정민주 이해정 학생의 결심공판에서 각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 민가협 어머니들, 사당의원으로 이종, 김도한, 주명순 선생님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 『말』4월호를 5곳의 교도소에 발송했습니다.
- 양심수후원회 제8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첫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도위원 4분, 감사 2분, 운영위원 9분, 간사 2분 모두 17명으로 총준위를 구성하고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습니다. 총준위원장으로 김승훈 신부 호선, 사업계획안 등 의안 채택, 9차년도 사업평가와 운영위원회 기능으로써 재정, 사업보고 등을 검토했습니다.
- 장학로 전 청와대 제1 부속실장의 37억원 부정축재 사건으로 검찰이 장씨를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 3 · 21**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김병권(범민련 구속)씨의 따님 김난영 씨의 사례발표, 김태년(불고지 사건, 보석석방)씨 출소인사가 있었습니다.
- 3 · 22** - 민가협 제11차 정기총회가 흥사단 강당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공동의장으로 정양업 (송갑석 어머니), 권오현, 박용길, 윤혜경 님이 올 한해 민가협을 이끌게 되었고 전, 노씨가 법정에 선 올해 양심수 전원 석방을 이뤄내자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문익환 목사 방북 7주년을 맞아 '문익환 목사님 방북의 신학적 의미'라는 주제로 기념강연회가 향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 서울지검 조성욱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연합 사무차장 박충렬씨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간첩조직'에 실패한 조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차욕스럽다" "자존심을 걸고..."라고 말하며 지극히 감정적인 판단으로 구형을 한것으로 보여 많은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 3 · 23** - 이종 선생님, 어깨 통증이 사라져 퇴원하셨습니다.
- 꽃다지 이은진 대표, 민맥 출판사 원웅호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 사노맹 구속자 후원 모임 '민들레'는 양심수를 위한 하루주점을 한양대 조교식당에서 열었습니다. 후원회 회원들과 민가협 어머니들이 함께 했습니다.
- 3 · 24** - 양심수후원회 3월 산행이 있었습니다. 연신내역에서 모여 불광사, 향로봉, 북한산성 외성 능선을 거쳐 구기동으로 내려왔습니다. 모두 29명이 모여 비와 눈이 함께 내리는 북한산에 안겨 빼어난 절경을 바라보았습니다.
- 3 · 25** - 문화방송 노동조합 농성장을 격려 방문했습니다.
- 명동성당에서 반미, 교육비 재정보조를 위한 서충련 농성단을 격려방문했습니다.
- 3 · 26** - 『후원회소식』54호 편집 모임이 있었습니다.
- 장기수가족협의회에 300, 000원을 지원했습니다.
- 3 · 27** - 서울지법 민사 22부(조건호 부장판사)는 미국헌병에게 불법체포되어 감금당한 김금순, 설은주 씨에게 국가는 치료의 위자료로 1,800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3 · 28** -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습니다. 부산 민가협(회장 유정옥·백태웅 씨 어머니) 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의료보험노조 황민조 선전국장, 강민조 님, 보석으로 석방된 꽃다지 이은진 대표 출소 인사가 있었습니다. 꽃다지가 좋은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 사노맹, 서울대 노나매기, 전노운협 구속자 대책위 등 최근 국가보안법 구속자 대책위는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30일까지는 명동성당에서 농

이런일이 있었어요

성을 벌일 예정입니다.

- 김도한 선생님이 순천향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 5년 이하 기결수와 미결 양심수 181명, 미국수도장로교회 지원 무연고 장기수 10명에게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3 · 29

- 정민주 이해정 학생이 선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교육재정 확보와 대선자금 공개를 위한 서총련 동맹휴업 총궐기 대회'를 벌이던 연세대 법대 2학년 노수석 군이 경찰의 폭력,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노군의 시신이 안치된 국립의료원에는 경찰들이 병원을 둘러싸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가로막았습니다.

3 · 30

- 노수석 학생의 시신을 국립의료원에서 연세 세브란스 영안실로 옮겼습니다.

- 낙성대 만남의 집, 무연고 출소장기수 선생님 13분에게 생활지원금을 드렸습니다.

3 · 31

-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되어 아기를 사산한 고애순 씨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 양심수 가족돕기로 김성만 씨 어머니에게 성금을 드렸습니다.

- 박용길 장로님에게 병환 위로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

4월 산행

1960년 4월, 그날의 함성이

울려퍼지는 듯 합니다.

젊은 목숨들이 진달래 꽃잎처럼

떨어지던 역사가 다시 오늘

노수석 군의 죽음으로 아프게

되살아납니다.

함께 모여 북한산의

진달래 능선을 따라

노수석 군의 영혼을 위로하고

4 · 19 탐에서

4월 열사들의 뜻을 기립시다

언제 : 96. 4. 21 (일) 오전 10시

어디로 : 우이동 그린파크 호텔 앞

준비할 것 : 도시락, 화비 3천냥,

따뜻한 마음

*좌석 725번, 시내버스 28, 23, 6, 6-1,

8번을 타시면 됩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8차 정기총회에 모십니다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의 고난과 시련에 함께하고자

양심수후원회가 첫발을 내딛은 지 어느덧 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늘 사랑과 애정으로

후원회를 지켜봐 주신 회원 여러분!

올해는 기필코 옥문을 활짝 열고 모든 양심수들이 우리 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다짐을 나누려 합니다.

부디 함께하셔서 서로에게 용기와 격려를 더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차례

1 부 : 양심수후원회 제8차 정기총회 및 기념식

2 부 : 모두가 하나되는 뒷풀이

• 일시 : 1996년 4월 20일(토요일) 오후 3시

• 장소 : 대학로 흥사단 3층 강당 (743-2511-3)

● 인권소식

국가보안법 구속기간 연장 규정(19조), 위헌제청

지난 3월 5일, 서울지법 형사 3단독 박시환 판사는 국가보안법(제3조, 8조)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씨에 대해 검찰이 2차 구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판사의 직권으로 국가보안법 제 19조(구속기간 연장)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재청했다.

국가보안법 제 19조는 구속기간의 연장 조항(제1항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 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지방법원 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은 1992년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으로 그 해 4월 14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와 제10조(불고지)위반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19조의 구속기간 연장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3월 5일 제출한 서울지법 명의의 위헌제청 결정문에는 "당시 현재의 결정이 7조와 10조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나머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위헌여부의 결정을 유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19조의 적용은 "위 두 조항외의 나머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19조 전체와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해도 어느 범위까지 위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현재의 결정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결정이 보류되자 검찰은 구속만기일인 6일 곧바로 강씨를 기소했다.

● 3월 구속된 양심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김형철(전 새벽별 출판사 발행인): 사회주의과학원 운영위원 - 3. 11

조성애(인천민정련) - 3. 6

김정희(진보정치연합 울산지부): 사노맹 가입혐의 - 3. 15

송진환(92년 남총련 의장): 92년 남총련 출범식 때 '조국은 하나다'는 깃발을 걸면서 단일기와 태극기, 인공기를 함께 걸었다는 이유로 수배를 받아 왔다 - 3. 18

김재호(한양대 90학번) 한상미(덕성여대 90) 이은지(덕성여대 93) 송호철(고려대 90) 권호영(군인 고려대 92) 신석원(서울산업대 91) 이지윤(인덕전문대 90) 김대인(군인 인덕전문대 93) 이태형(서경대 92) 김은혜(서경대 91) - 이상 사회주의학생연합 관련 구속자 - 3. 28

집회 시위 관련

하만희 조광승 강병욱 최성욱(이상 부산 동아대) - 부산시문화원 방화 기념일에 집회 도중 연행, 구속

박표균(의료보험 노동조합 해고노동자 공노대 복직투 집행위원장) 박현영(의료보험 노조 조직국장·집행위원) 남진우(철도 해고노동자·집행위원):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해고노동자 원직 복직 투쟁위원회 - 정보통신부 앞에서 '통신주권 보호, 통신분할 반대, 한국통신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하던 중 연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 3. 21

김중원(고려대 서장 배움터 95년 총학 부회장) 최현철(총학 정치사업국장): 5 18시위 주도 혐의 - 3. 13

백승규(경원대 95년도 총학생회장) - 고 장현구 군 분신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학내민주화 투쟁 주도.

회원소식

- 조계숙 회원이 2,500,000원을,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박선생님 등 세분이 160만원을 성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일본 그리스도 우회 동경월회에서 양심수를 위해 써달라며 51,075엔을 한승헌 변호사님을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홍일선(시인) 운영위원께서 시집 '한알의 종자가 조국을 바꾸리라' 40권을 기증하셨습니다.
- 인천에 사시는 황영태 선생님이 뇌혈전증으로 투병하시다 경희의료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한방 신관 5층 3511호실입니다.
- 김현순 선생님의 3남 김보선 님이 4월 27일 3시 30분, 마포 의료보험공단 예식홀에서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신동옥 회원(29. 화가)이 이번호부터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으로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서양화를 전공한 신동옥 회원은 앞으로 우리 「후원회 소식」을 삽화 등으로 예쁘게 꾸며 가기로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임현영(문학평론가) 회원께서 23년만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초빙교수로 강단에(3월부터) 서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김길자 회원이 3월 19일, 예쁜 딸을 낳았답니다. 축하드립니다.
- 송록희 간사가 3월부터 다시 상근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 김선명 선생님께서 공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답니다. 쾌유를 빕니다.
- 권양섭 선생님의 둘째 아드님인 권제기 님이 4월 8일 새벽 1시, 갑작스런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남현순(성남시 신흥동) 함 용(광명시 철산1동)

이미영(인천시 효성2동) 조봉관(구로구 오류2동)

민가협 제11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보랏빛 머리수건으로 상징되는 이땅의 장한 어머니들이 민주화와 민족통일, 인권과수꾼으로 열심히 투쟁했던 지난 1년을 정리하고 96년 사업을 다짐하는 민가협 제11차 정기총회가 3월 22일 대학로 홍사단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서울과 지방 민가협 회원들과 출소 선생님들을 비롯 유가협, 민자통, 범민련, 4월 혁명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많은 손님이 오셔서 격려하는 가운데 95년 사업평가와 재정집행을 감사보고하고, 9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투쟁에 온 힘 다하겠다는 결의문을 큰박수로 승인하는 순서에 이어 지난 8월에 나오신 한장호 선생님, 박정기 유가협 회장, 정명기 한총련 의장이 격려와 축하말씀을 해주셨고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 상영 등으로 그 순서를 마치고 조출한 음식으로 뒤풀이를 했습니다.

총회에서는 민가협 상임의장으로 정양엽(송각석 씨 어머니) 님을 공동의장으로 박용길(청민가), 윤혜경(장가협) 권오현(양심수후원회)을 인준하고 권처홍, 최진호 회원을 감사로 직접 선출하였고, 서울과 지방 민가협 새 집행부 전원이 나와 맡은 일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난있는 곳마다 앞장서 애쓰시는 어머님들 노고에 거듭된 감사드립니다.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이 또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3월 29일 오후 5시 30분 '대선자금 공개 촉구와 등록금 인상 저지 및 국가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노수석(연세대 법대2) 군이 사망하였습니다. 삼가 애도를 표하며 노군 사망사건의 진상이 하루빨리 밝혀지고 책임자들의 처벌이 이어져 노군이 편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학생 고 노수석 추모 및 김영삼 정권 살인폭력진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자체 조사한 노군 사건의 진실을 실습니다. 지면관계상 노군의 사인이 이 경찰이 발표한 것처럼 "가 아니라 경찰들의 폭력적인 진압 과정에서 죽어갔음을 밝히는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을 그대로 실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애국학생 고 노수석 추모 및 김영삼 정권 살인폭력진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시위도중 사망한 연세대생 노수석(20세, 법학2) 군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결과 당시 경찰은 시위대의 해산 차원을 넘어서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무차별하게 검거하고자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타와 최루탄 피폭, 폭력검거를 피하고자 전력질주를 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 한계상황에 처하였고 이에 극도의 공포심이 더하여져 급기야 심폐기능의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 사망했음을 확인하였다. 대책위가 노수석군이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해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노수석군은 3월 29일 시위현장에서 경찰에게 구타를 당하였다.

노군의 부검을 참여한 양길승 성수의원 원장은 노군의 사체로부터 심폐소생술과는 전혀 무관한 외상이 표피관찰과 사체절개과정에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외력에 의하여 생긴 구체적인 외상은 ① 왼쪽 무릎 2군데 0.6×1.1cm, 1.7×2.6cm 크기의 압박성, 마찰성 피부손상 ② 왼쪽 윗팔 2군데 0.2×3cm, 0.6×0.5cm 크기의 피하출혈 ③ 등 오른쪽(견갑골 부위) 7×5cm 크기의 출혈 (근육층 0.5cm 깊이까지) ④ 등 오른쪽 3×2cm 출혈 ⑤ 오른쪽 허벅지 3×2cm 출혈 ⑥ 왼쪽 팔 5×2cm 출혈 ⑦ 왼쪽 무릎 부위 출혈 등이다.

한편 시위현장에서 노군 옆에 있었던 법대 후배 남기돈(연세대법학1) 군은 노군이 "나 맞았어"라고 2-3차례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또한 시위현장에서 노군을 만났던 임이택(연세대 법학1) 군은 노군이 "다리에 쥐가 났다"며 왼쪽 다리를 절며 기우뚱거렸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노군이 숨질 당시 대현문화사에 같이 피신하여 있던 학생들은 노군이 왼쪽다리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2)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이 노군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경찰은 애시당초부터 이 사건 시위에 대하여 강경진압 방침을 사전에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시위의 실체상황과 전개과정(학생들은 비폭력·평화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폭력진압으로 시종일관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연행되면서 전경들이 휘두른 폭력에 의하여 큰 부상을 입었다.

전경들은 시위대에 최루탄을 난사하며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돌진하였고 시위대열을 이탈하여 골목 안으로 피신하는 학생들을 끝까지 뒤쫓아 건물 안까지 난입하여 학생들을 무차별 구타하면서 연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이 노군을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갔다.

1996. 4. 2

애국학생 고 노수석 추모 및 김영삼 정권 살인폭력진압 대책위원회

한편 대책위는 노군의 장례를 4월 4일 치루고자 했으나 "정부와 학교당국이 사과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대로는 수석이 볼 수 없다"며 장례를 반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노군의 가족이 "학생들에게 맡긴다"고 동의해 장례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학생회관 앞 백양로에서 농성을 벌이다 4월 10일 다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지는 광주 망월동 묘역.

노수석 군의 죽음 이후 학내민주화와 교육재정확보를 요구하던 두 학생의 죽음이 잇달았다. 학원의 파행적 운영을 둘러싸고 수년간 학교측과 학생들이 갈등을 빚어오던 경원대에서는 지난 95년 11월 분신한 고 장현구 군 대책위에서 활동하던 진철원 군이 4월 6일 밤, 총여사무실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아직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진군의 죽음은 단순 화재사가 아닌, 분신 자살이라는 점이 여러 정황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 남은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또한 지난 3월 25일부터 교육환경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성신여대 권회정 양이 갑자기 가슴의 통증을 호소해 와 병원으로 옮겼으나 7일 오후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두 학생의 명복을 빈다.



양심수후원회원을 찾습니다

4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감옥문을 뒤로하고 마침내
세계 1위, 2위, 3위 최장기수가 세상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감옥문은 다시 굳게 잠기고 저 십오척 담장안에는
세계최장기수인 '또 다른 김선명'들과 400여 양심수가
우리의 무디어진 양심을 울리며 그렇게 갇혀있습니다.
3, 40년 동안 녹슬어 있는 빗장은
우리들 양심의 녹슬을 아닐까요.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전두환, 노태우를 기어이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둔 양심수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은 잘못된 역사에 의해 지금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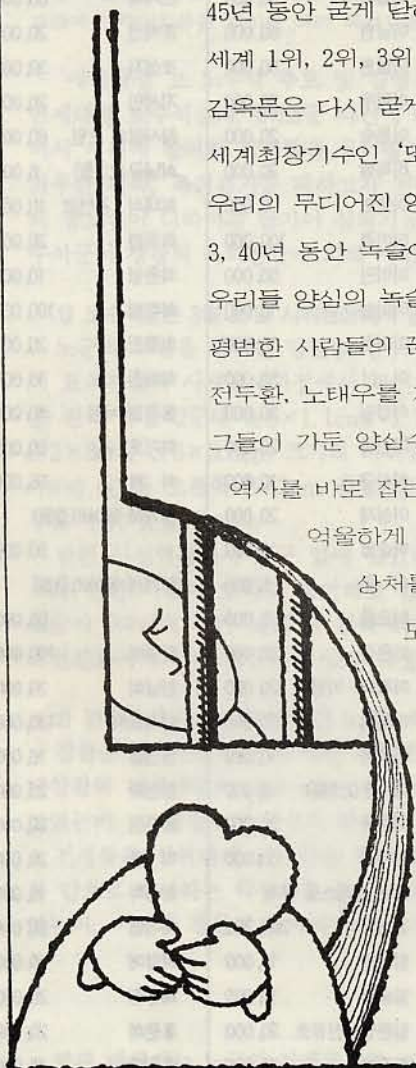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양심수가 옥문을 활짝 열고

사람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일, 이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양심수 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 40년 넘도록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있던 장기수들에게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합니다.
-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무연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머물 곳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기타 자신의 처지에 맞는 여러 형태의 후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실 송금구좌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택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협	053-01-112692 (권오현양심수)
지로번호	7619407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종로구 창신 2동 592-7

Tel. 763-2606 Fax. 745-5604